

성삼 후 8주일(연중 16주일) 감사성찬례 2형식

집전 / 설교: 최용준 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스테반
지휘: 이유니스 반주: 정모니카 선창: 김니콜라

개회예식

†입당성가 입례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기원송가 거룩하신 하느님 (9쪽)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도 집 전 자
영원하신 하느님, 신비로운 창조와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하여금 세
상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주님의 축복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1독서 예레 23:1-6 말 은 이
성 시 시편 23편 다 함 께



- 1 주님은 나의 목 | 자시 | 니
○ 아쉬 | 울 것 | 없어 | 라.
 - 2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 하시 | 고
○ 물가로 이끌어 | 쉬게 | 하시 | 니
 - 3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 | 이시 | 니
○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 곧은 | 길이 | 요,
 - 4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 지라 | 도
○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 | 울 것 | 없어 | 라.
 - 5 당신의 막대기와 지 |팡이 | 로
○ 인도하시니 걱정 | 할 것 | 없어 | 라.
 - 6 원수들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 주시 | 고,
○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 넘치 | 옴니 | 다
- ◎ 영광이 | 성부와 ○ 성자와 | 성령 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 아 | 멘

2독서 에페 2:11-22 말 은 이
†복음환호송 말 은 이
†복음서 ... 마르 6:30-34, 53-56 말 은 이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생명 주께 있네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102쪽(C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5쪽(C곡) 다 함 께
성체성가 야곱의 축복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41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
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
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
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4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비 준비하시니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7월 21일)	다음 주일(7월 28일)
1독서	말은이	윤희진
2독서	말은이	유정훈
대 도	김운권	정연창
다음주일 전례독서	열왕하 4:42-44 시편 145 에페 3:14-21 요한 6:1-21	
성 가	255 273 503 292	
복 사	이동우 이서현	보혈조력 정요셉
다음주간 교회청소	<6조> 최용욱 윤희진 허예영 동소신	

(1997-2024 / 교회설립 27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4년 7월 21일 성삼 후 8주일(연중 16주일) · 나해 · 녹색

제28-29호

주님 안에 머무르는 쉼, 넉넉한 신앙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도 서로 낯선 사
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
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 억누르거나 강요하는 삶을 떠나, 낯선 사
람,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환대하여 형제자매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장 비결은
그리스도의 환대와 사랑을 중심으로 커가는 새
로운 가족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 '하느님의 집'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잣대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집을 이룬 가족의 마음이
'측은지심'이라고 몸소 보여주십니다. 참 인간이
신 예수님이시기에 육체의 피곤을 느끼셨고, 전
도활동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쉬기를 원
하셨습니다. 피세정념(避世靜念),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는 일이 필요합니다. 쉼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생활에서 잠시
멈춰서야 긴 호흡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
다. 그때서야 자신을 둘러싼 사람과 사물이 보
이기 시작합니다. 멈추어 바라본 세상에 마음을
주는 일이 측은지심입니다. 그 뒤로 다시 움직
이는 행동은 이제 일이 아니라 치유요, 구원입
니다. 치유와 구원을 펼치는 자비의 손길은 피
곤함을 모르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마련해 줍니다. 말씀과 성체로
서로 먹이는 풍요로운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자들과 군중들을
바라보며 행동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쉼과 휴식을 통해, 온화하고 넉넉한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욱(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올리야나)

1독서 <예레 23:1-6>

1 "이 저주받을 것들아, 양떼를 죽이고 흠뜨려버리는 목자라는 것들아, 야훼의 말을 들어라. 2 내 백성을 칠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한다. 내 양떼를 돌보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흠뜨려서 헤매게 하니, 너희의 그 꾀잡한 소행을 어찌 별하지 않고 두겠느냐! 똑똑히 들어라. 3 나 비록 나의 양떼를 이 나라 저 나라로 헤매게 하였지만, 그 중에서 살아 남은 것을 모든 나라에서 본래의 목장으로 다시 모아들여 크게 불러나게 할 것이며, 4 그들을 위하여 참 목자들을 세워주리라. 그러면 내 양떼는 겁이 나서 무서워 떠는 일 없이 살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말이다, 어감이 없다. 5 내가 다윗의 정통 왕손을 일으킬 그 날은 오고야 만다. 이는 내 말이다, 어감이 없다. 그는 현명한 왕으로서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펴리라. 6 그를 왕으로 모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살 길이 열려 마음놓고 살게 되리라. '야훼 우리를 되살려주시는 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리라.

2독서 <에페 2:11-22>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

11 이방인으로 태어난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몸예다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은 소위 할례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2 그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는 외국인으로서 약속의 계약에서 제외된 채 이 세상에서 희망도 하느님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13 이렇게 여러분이 전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4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15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 하시고 16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17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18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20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잇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21 온 건물은 이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22 여러분도 이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느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마르 6:30-34, 53-56>

30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3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하고 말씀하셨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예수의 일행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났다. 33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알고는 여러 동네에서 모두 달려나와 육로로 해서 그들을 앞질러 그 곳에 갔다. 3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군중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셨다. 53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배를 대었다. 54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고 55 그 근처 온 지방을 뛰어들면서 병자들을 요에 눕혀가지고 예수가 계시다는 곳을 찾아 그리로 데려왔다. 56 마을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지기만 하면 사람들은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그 옷 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전례곡조

성삼후절기(연중절기) 동안 전례곡조는 C곡입니다.

■ 알림

◆ 전교우 여름 수련회

일시: 7월 20일(토) ~ 21일(주일)

장소: 강촌 성요한 피정의집 (춘천시 남면 발산리)

주제: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교회"

하느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대하게 하소서.

◆ 남부교무구 권역별 <여름성경학교>

일시: 7월 27일(토) 9시 ~ 5시 / 장소: 수원교회

참여: 이지안, 유아현, 유아윤 이하린입니다.

수원, 안양, 안산, 오산제자교회와 함께 합니다.

◆ 서울교구 세실대학 '신자 사역자' 6기 모집

접수기간: 7월 22일(월) ~ 8월 3일(토)

◆ 제2회 성서 암송대회 (범위: 시편 1편)

다음 주일(28일) 11시 성찬례 후에 열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세요.

◆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다음 주일(28일) 암송대회 후에 모입니다.

◆ 금요 기도모임

7월 26일(금) 오후 7시에 있습니다.

◆ 수요 성서공부 종강

여름 한 달 동안 방학에 들어갑니다.

◆ 청년회 여름 수련회

일시: 8월 15일(목) ~ 17일(토)

◆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 전체수련회

일시: 8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 주교좌성당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미순, 이윤수(21일) 한진석(25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570,000원
김준우/조장은 류한신/이민녀

■ **주일헌금** 183,000원
권순호 김승현 류한신 박선희 박종례 백옥경
유정훈 이원주 최순덕 최용욱 황선숙

■ **주일학교** 2,000원
유아윤 유아현

■ **감사헌금** 72,000원
정연창/박순호(인도, 보호하심)
조준행신부(건강) 허재원

■ **특별헌금** 440,000원
전교우 여름수련회 회비. 최미혜(늘푸른)
이윤식, 최용준신부(아론기금)

<성공회 산본교회 봉헌 안내>

신한 100-033-428656 대한성공회 산본교회

◆ 주간전례독서 (7월 22일 ~ 27일 / 연중 16주간)

	독서	복음
22일(월)	2고린 5:14-17	요한 20:1-2, 11-18
23일(화)	미가 7:14-15, 18-20	마태 12:46-50
24일(수)	예레 1:1, 4-10	마태 13:1-9
25일(목)	사도 11:27-12:2	마태 20:20-28
26일(금)	로마 8:28-30	마태 13:16-17
27일(토)	예레 7:1-11	마태 13:24-30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기억하며

-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 어려운 교우와 환우 교우를 위하여

강영욱 권영분 기필순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박종례 박순호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발 한명숙

◆ 해외 체류

김보미 조민규 조이준 방유미 이형석 디아나
이주안 임인택